



치트는 시장의 비밀을 알고있다. 치트 분석이 담긴 **정인지** 애널리스트입니다.
 ☎ (02)3770-3585 ✉ inji.jung@tongyang.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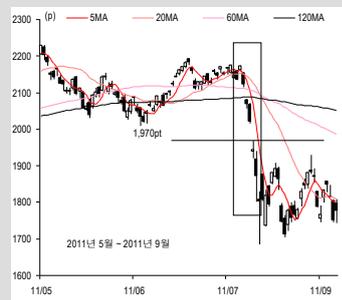
하락 갭이 나타나면 조심해야 하는 이유

Technical Analyst

정인지
02-3770-3585

inji.jung@tongyang.co.kr
<http://blog.naver.com/value93>

KOSPI 일봉, 60주 이평선 이탈 시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일봉, 60주 이평선 이탈 시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Why This Report

KOSPI가 60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과거 60주 이평선이 중장기 추세의 분기점 역할을 했던 점을 감안하면 일단 고무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낮은 거래대금으로 볼 때 매수세가 강한 상황은 아니므로 안정적인 추세보다는 일정한 등락 과정에서 점진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등에 실패하고 1,900pt 부근에서 하락 갭이 형성된다면 60주 이평선 이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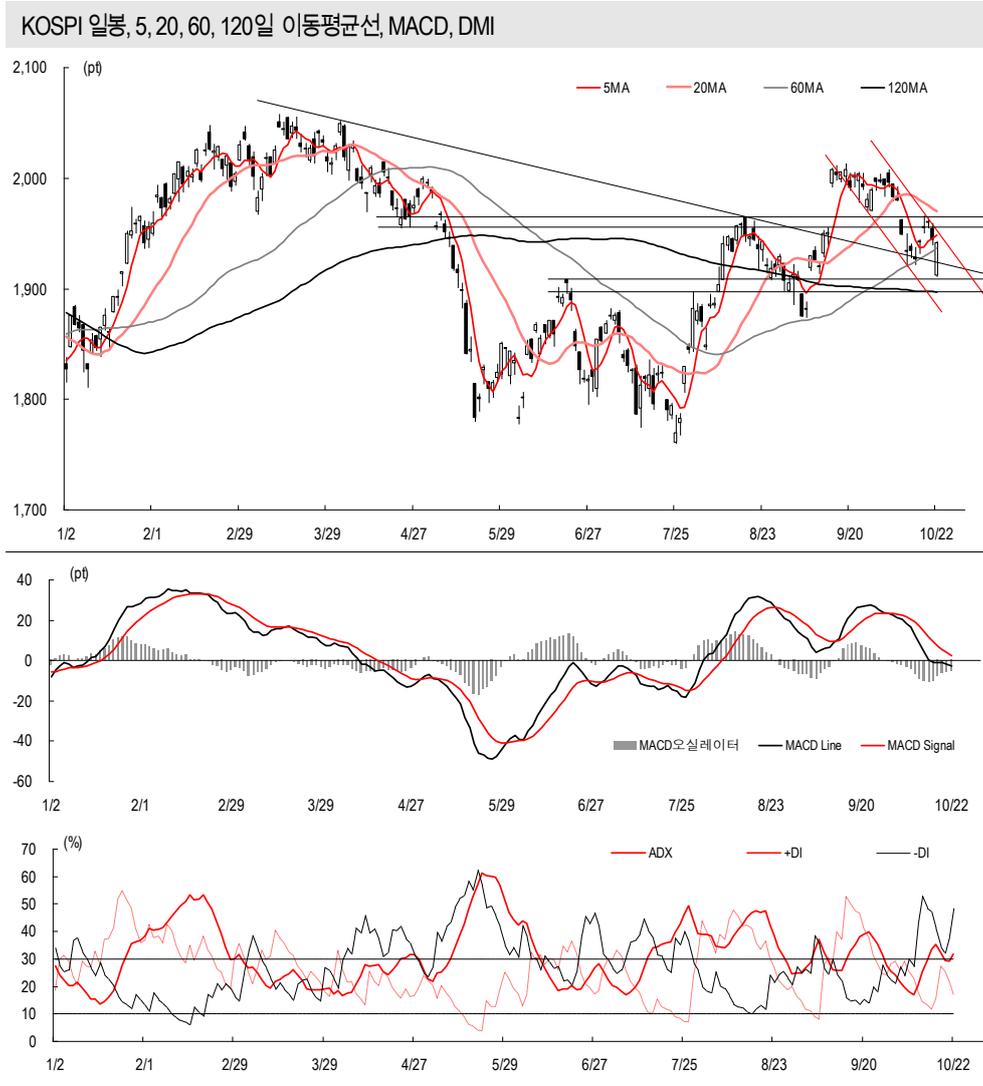
Investment Point

KOSPI 전망

- ▶ KOSPI, 전주말 미국시장의 영향으로 하락 개장했지만 6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시가 하락 폭을 대부분 회복하고 마감
- ▶ 60주 이동평균선은 중장기 주가 흐름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동 이평선이 지지되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 ▶ 특히 장 중 상승 폭 대비 거래대금이 낮았다는 점은 매도세가 약하다는 의미로 이미 매물 소화 과정이 대부분 진행된 것으로 추정
- ▶ 이런 경우 장기 하락 추세 과정이 아니라면 다소 불규칙한 주가 흐름을 보이지만 대부분 중기 저점대를 형성하고 상승 추세로 진행
- ▶ 다만 일시적으로 60주 이평선이 지지되더라도 빠르게 반등하지 않으면 다시 이탈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 필요
- ▶ 만약 1,900pt 부근에서 하락 갭이 형성된 후 장 중에 매우지 못한다면 60주 이동평균선 이탈 가능성에 대비해 적극적인 위험관리 필요

- KOSPI, 60주 이동평균선 지지로 점진적인 상승 추세 진행 가능성 우위
- 60주 이동평균선 지지에 실패하고 하락하면 적극적인 위험관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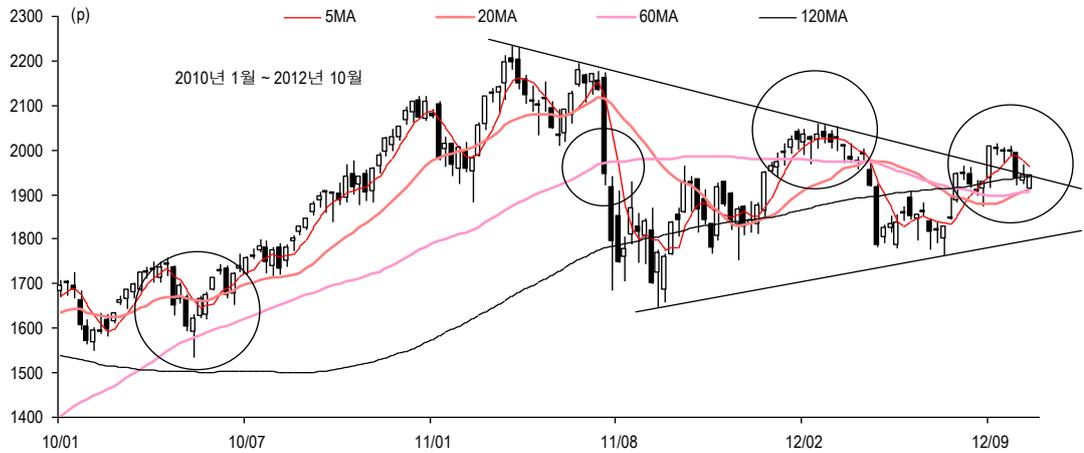
KOSPI, 60주 이동평균선 지지의 의미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KOSPI가 전주말 미국시장 하락의 영향으로 10월 저가를 경신하면서 개장되었지만 장 중 내내 낙폭을 줄여 종가 대비 -0.12%하락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MACD와 DMI지표에서는 매도 신호가 지속되었다. **전일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60주 이평선과 6월 고점대 등의 지지대가 위치한 1,900pt 부근에서 장 중 저점을 형성하고 강하게 반등했다는 점이다.** 전주말까지 14일 연속 형성된 음봉에 대한 부담과 미국시장의 급락이라는 악재 속에서 기술적으로 중요한 분기점인 60주 이평선을 지켰다는 점에서 일단 중요한 고비는 넘긴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중기적으로 다소 불규칙한 횡보국면으로 진행되더라도 60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결국 상승추세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 동 이평선의 지지 여부는 장기적인 주가 흐름의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KOSPI 주봉, 60주 이동평균선에 도달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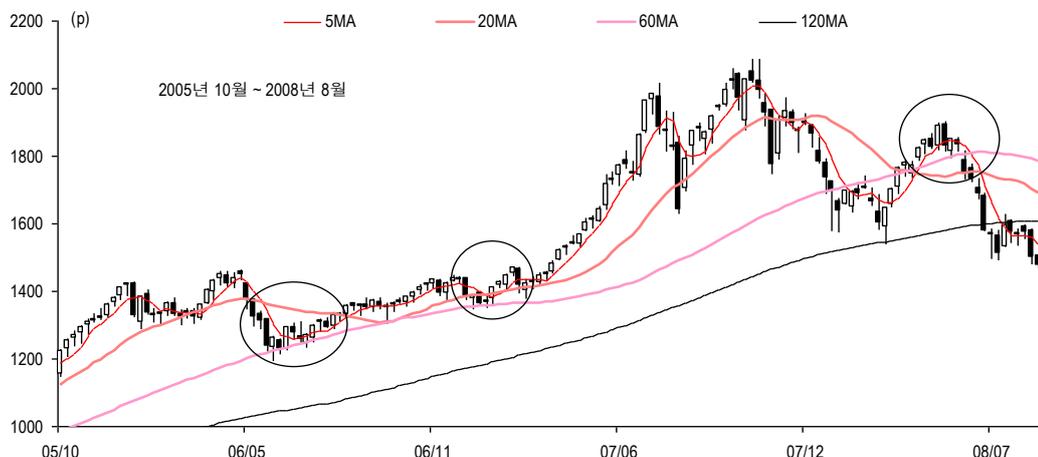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과거 KOSPI 60주 이평선은 중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기점 역할을 했다. 2000년 4월과 2002년 9월, 2008년 6월, 2011년 8월, 최근에는 금년 5월 초의 경우를 보면 KOSPI가 60주 이평선 지지에 실패하고 하락하면 강한 하락 추세를 형성했다. 반면 60주 이평선이 지지되는 가운데 불규칙한 횡보국면이 진행되거나 이미 형성된 하락 추세가 60주 이평선에서 멈추는 모습이 나타나면(2006, 2010년) 이후에 강한 상승 추세가 전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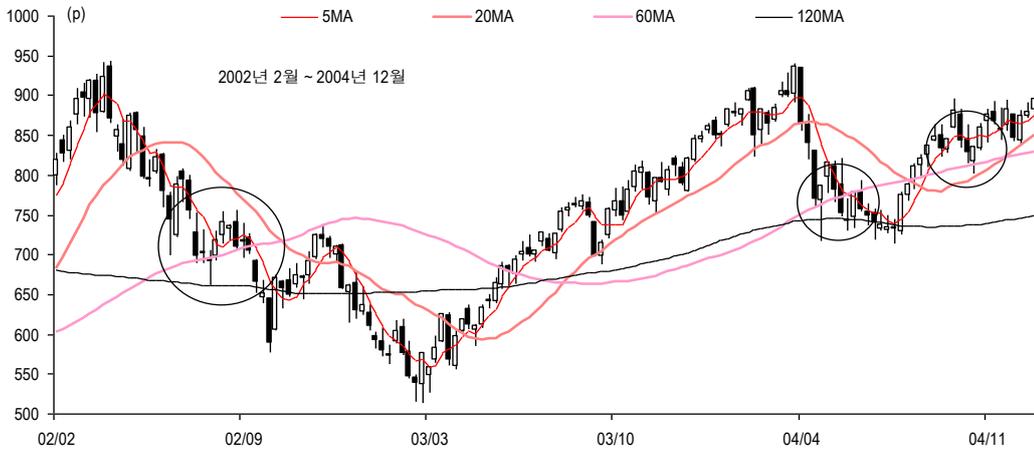
올해 8월 초에 60주 이평선을 회복한 후 증가 기준으로 동 이평선을 이탈한 적이 없었고, 전일과 같이 동 이평선 부근에서 강한 지지력을 보여, 중기적으로 방향성 없는 횡보 국면이 진행되더라도 60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연말이나 내년 1분기에는 장기 상승 추세가 전개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을 수 있다.

KOSPI 주봉, 60주 이동평균선에 도달한 경우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주봉, 60주 이동평균선에 도달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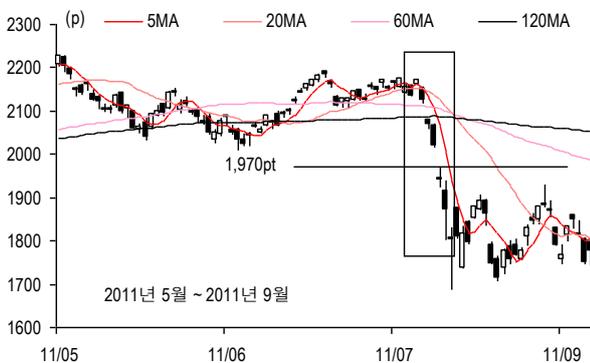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과거 60주 이평선 이탈 과정에서 동 이평선에서 상승 시도가 몇 주에 걸쳐 나타난 후에 이탈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60주 이평선도 매우 완만한 상승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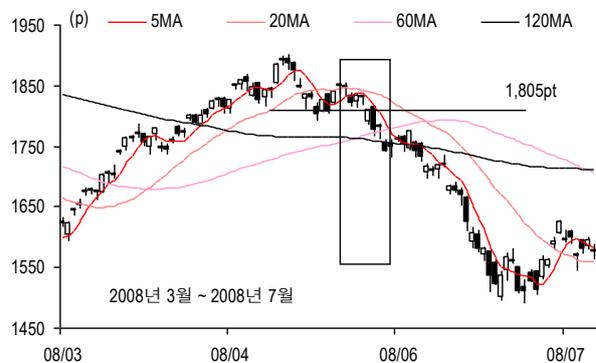
특히 단기적으로 주의할 점은 60주 이평선 부근에서 일봉상 하락 갭이 형성될 때다. 아래와 다음 페이지의 차트는 60주 이평선이 이탈되는 시점의 일봉 차트이다. 대부분 60주 이평선 이탈 후 추세 하락으로 이어질 때에는 일봉상 갭(당일 고가가 전일 저가보다 낮은 경우)으로 60주 이평선을 이탈하거나 60주 이평선 이탈 직전에 갭 하락하면서 하락 추세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60주 이평선 위에서 매수 관점을 유지하더라도 1,900pt 부근에서 갭 하락한 후 장 중에 매워지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KOSPI 일봉, 60주 이동평균선 이탈 시점의 일봉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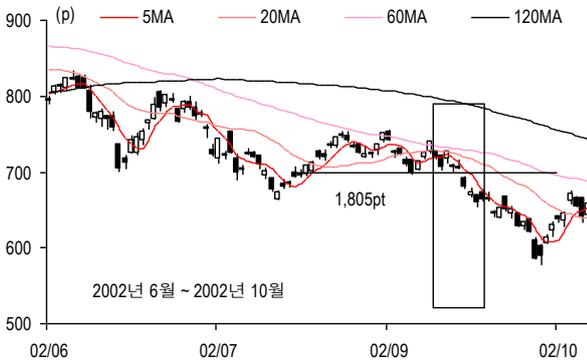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일봉, 60주 이동평균선 이탈 시점의 일봉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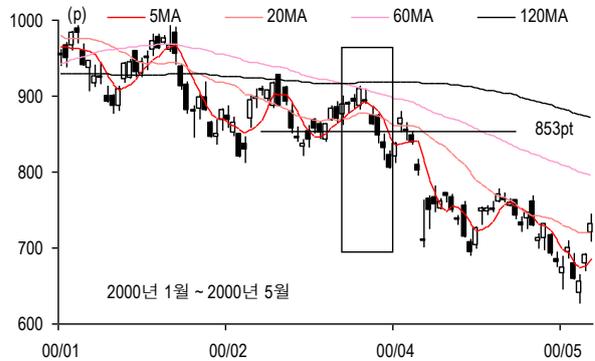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일봉, 60주 이동평균선 이탈 시점의 일봉 흐름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일봉, 60주 이동평균선 이탈 시점의 일봉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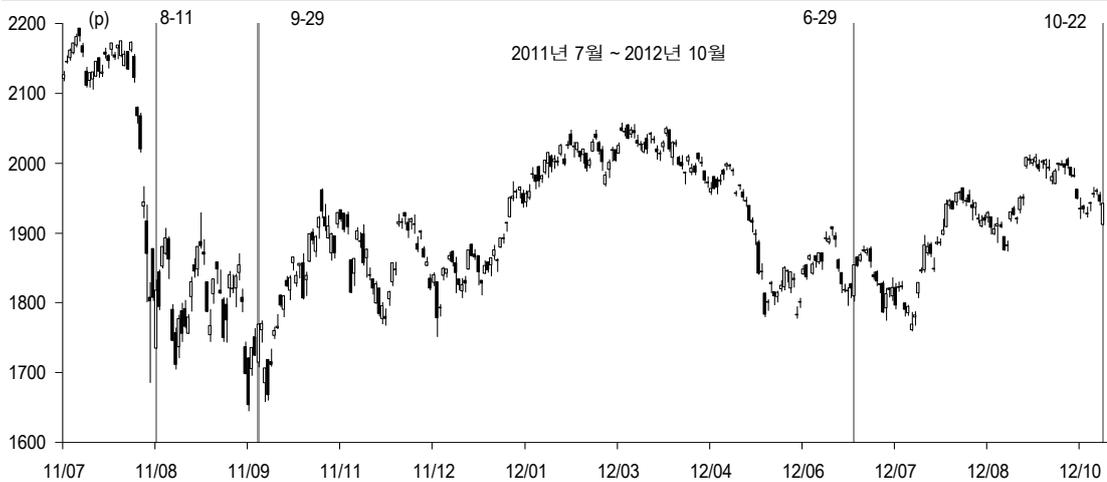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장 중 반등 폭에 비해 낮은 거래대금의 시사점

전일 시가대비 증가 상승률은 1.62%를 기록했지만 거래대금은 3조 8천억원대로 10월 평균 거래대금인 4조 2천억원대에도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했다. 충분한 거래대금이 실리지 않은 상승으로 매수세가 강해져라기 보다는 매도가 약해서 상승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일시적으로 매물이 대부분 소화되었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상승 추세 국면에서는 단기 내지 중기 저점대를 형성한다. 다만 바로 상승 추세로 이어지지 않고, 일정한 등락 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상승국면으로 진행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할 때 본격적인 추세 상승이 전개된다.

반면 추세 하락국면에서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추가 매물이 출회되면서 일시적 반등 후 하락 추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하락추세 국면에서 낮은 거래대금으로 반등하면 이후 하락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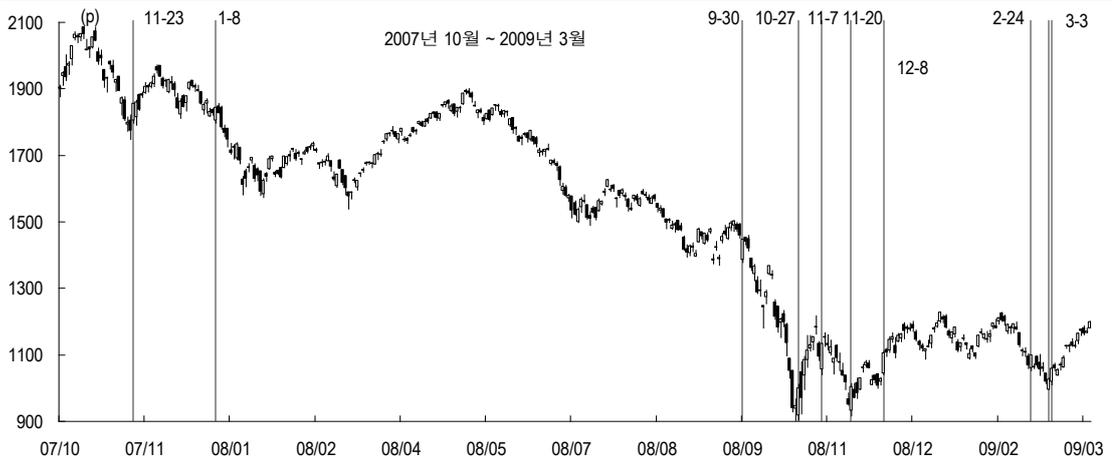
KOSPI 일봉, 시가대비 증가 상승률 1.5%이상, 거래대금/(증가-시가)가 1,300억원 이하인 경우, 거래대금이 적은 장대 양봉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지속 가능성이 높다. 이전 페이지 상단과 이번 페이지 상단의 차트는 2007년 10월 이후 시가 대비 증가 상승률이 1.5%이상이고, 거래대금/(시가-증가)가 1,300억원 미만으로 낮은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큰 양봉을 형성한 경우를 정리한 것이다. 현재 장기로 비추세 국면이므로 모든 경우가 가능하지만 중기적으로 상승 과정에 있어, 단기적인 매물 소화 이후의 반등 과정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판단된다.

KOSPI 일봉, 시가대비 증가 상승률 1.5%이상, 거래대금/(증가-시가)가 1,300억원 이하인 경우, 거래대금이 적은 장대 양봉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 : 60주 이동평균선 이탈 전까지 매수 관점 유지

KOSPI가 갭 하락한 후 6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해 갭을 모두 메워 하방 경직성이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KOSPI는 60주 이평선을 중심으로 중요한 분기점을 형성하기 때문에 동 이평선이 지지되는 한 추세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둔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동 이평선의 상승 기울기가 약하다는 점과 몇 주에 걸친 지지력 테스트 후 이탈하는 경우도 있어 아직까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특히 일봉상 갭을 형성하면서 1,900pt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60주 이평선을 지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전일 장 중 상승 과정에서 상승 폭에 비해 거래대금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매수세가 강해서 라기 보다는 매도세가 약해서 반등했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즉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다는 의미로 강한 하락 추세가 아니라면 대부분 중기 저점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이런 경우 바닥권을 형성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지속적인 상승 보다는 소폭을 등락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로 상승추세로 진행되므로 단기 상승 목표치는 높지 않게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